지역 사회 공헌 위한 아름다운 맞손

전북은행 - 롯데백 전주점,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과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최근 전북은행 본점 9층에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임직원(입주사 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대출 등 금융 서비스 및 금융 교육을 통한 신용관리 서비스 지원,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 사회공헌 활동 등의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 클리닉 센터는 백화점 내 상담 데스크 운영을 통해 백화점 임직원 및 고객들에게까지 건전한 부채관리(Debt Management Service) 서비스 제공,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신용 대출로 전환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 등급 상승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금융 서비스 강화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으로까지 이어져 한층 확대된 금융 지원으로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은 "기회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인 입주사 직원들의 금융지원이 확대대길 바란다"며, "지역대표 백화점으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과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최근 전북은행 본점 9층에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협약을 통해 롯데백화점 임직원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리디노미네이션 계획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화폐단위를 1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액면단위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건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박운섭 한은 발권국장이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 국회가 공론화해 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은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불씨를 지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여러 기대효과, 장점 등이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 안한다는 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아침에 경제부총리가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거기에 덧붙일 사안은 없고, 부총리께서 언급했으니 지켜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나친 쏠림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분기 경제 성장세 반등 여부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2분기 정부 재정이 이뤄지고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도 당초 흐름대로 (성장 흐름이) 이어가는지 면밀히 보고 있고 앞으로 미·중 분쟁이 어떤 영향을 줄지 꼼꼼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미·중 무역분쟁이 불확실해지면서 (금리인하) 의견이 있는 듯 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다음주 금통위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달 금통위 회의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농협,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위한 분석 · 논의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0일 지역본부에서 2018년 전북 농가소득 4,500만원 달성을 기념하고 범농협 시너지를 제고하고자 '전북지역본부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18년 전라북도 농가소득 현황 분석과 향후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됐다.

2017년 전북의 농가소득은 전국평균보다 약 300만원이 낮은 3,524만원이었으나 2018년 들어서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상승한 4,509만원을 기록했다. 전북의 이와 같은 성과는 증가율과 증가금액에 있어 전국 최고다.

'시너지협의회'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은행, 농협유통 등 14개 법인 소속의 19명 위원으로 구성 됐으며, 중앙회를 중심으로 시너지사업을 발굴하고자 매월 1회 개최해 오고 있다.

유재도 본부장은 "시너지협의회를 주축으로 법인 간 소통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너지사업들을 발굴하여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公 전북, 재해대비 기전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태풍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에 신속하고 정확한 배수장 가동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농업기반시설물 기계, 전기시설 사전 점검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관내 농업기반시설물(수원공)은 1,969개소로, 주요현황을 보면 양수장 571개소, 배수장 58개소, 양·배수장 13개소, 대형관정 258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점검은 본부 및 각 지사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시설물의 정상가동과 위기관리 대처능력 제고 및 직원 안전관리교육 등을 점검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강환 본부장은 "기전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적시, 적기에 (양,배수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치를 하여 농업인들의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일자리 창출 통해 국가 성장동력 확보 나선다

LX- 행정안전부, 업무협약 체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LX는 20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준비단(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행정안전부-LX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준비단' 개소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과 LX 김택진 국토정보본부장 등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중장기적인 운영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LX는 '공간드림센터'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주소정보를 창업과 연계하고 공사에서 추진중인 해외사업에 주소산업분야를 더한다.

또한, 행안부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소자료를 공사에 제공하고 기업과의 소통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지원한다.

김택진 본부장은 "모든 기업활동에서 주소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한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 생활편의와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도로명주소 활용 확산을 위해 매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행안부와 공동으로 도로명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본사를 비롯한 전국 지역본부와 지사 사옥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LED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해 도로명주소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현지통화로 실시간 수령하는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한국에서 미달러화(USD)로 송금하면 해외 179개국에서 119개 현지통화로 실시간 수령할 수 있는 'NH웨스턴유니온현지통화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NH웨스턴유니온현지통화송금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개인당 건별/일별 미화기준 7,000불까지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송금수수료가 건당 10~20달러로 대폭 낮아졌고 한국의 송금인이 송금수수료만 부담하면 수령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수령할 수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현지 통화 수령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보다 낮은 송금수수료와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금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문의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文 대통령 "추경 지연 안타까워… 조속한 심의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 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